

## 제사장 문서에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가 있는가?

— 창세기 1:2; 8:1; 출애굽기 14:21을 중심으로 —

배선복\*

### 1. 들어가는 말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기독교 창조 신학에 있어 근간이 되는 성서 본문이다. 구약의 저자는 창조 전의 상태와 창조 초기의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다른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와는 다르게 창세기는 이에 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지 않다. 창세기 1:1-2로부터 대략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헤르만 궁켈(H. Gunkel)은 1895년 현재까지도 논의되는 중요한 연구를 출판했다.<sup>1)</sup> 그는 창세기 1장, 특별히 1:1-2를

---

\* University of Chicago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한세대학교 시간 강사. [baesb2000@gmail.com](mailto:baesb2000@gmail.com).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세 번째 장의 부록이었던 “3.5.5 Excursus: The Combat Myth (*Chaoskampfmythos*) in P?”를 수정, 보완, 발전시킨 것임.

1)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영어 번역을 참고하였다: H. Gunkel, *Creation and Chaos in the Primeval Era and the Eschaton: A Religio-Historical Study of Genesis 1 and Revelation 12*, K. W. Whitney Jr., tran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6). 궁켈(H. Gunkel)의 이 주장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은 다음의 편서에 잘 나타나 있다: J. Scurlock and R. H. Beal, eds., *Creation and Chaos: A Reconsideration of Hermann Gunkel's Chaoskampf Hypothesis*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3). 몇몇 학자들의 지적처럼,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기사와 성경 본문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한 것은 궁켈이 처음이 아닐 수 있다. 참조, W. G. Lambert, “A New Look at the Babylonian Background of Genesis”, R. S. Hess and D. T. Tsumura, eds., “*I Studied Inscriptions from before the Flood*”: *Ancient Near Eastern, Literary, and Linguistic Approaches to Genesis 1-11*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4), 96-113; J. Day, *God's Conflict with the Dragon and the Sea: Echoes of a Canaanite Myth in the Old Testament*, University of Cambridge Oriental Publications 3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에누마 엘리쉬에 나오는 마르둑과 티아맛의 싸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깊은 사이의 싸움을 유추하면서, 창세기의 창조는 메소포타미아의 신화, 특히 에누마 엘리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지금까지도 학계에 많은 논의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우가릿의 바알 신화가 발견된 이후에,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과 혼히 물로 대표되는 혼돈 세력과의 싸움이 고대 근동의 동쪽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서쪽 레반트 지역에 있던 신화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가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와 더불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학문이 발전하면서 이 두 가지 주장에서 조금씩 변형된 형태의 많은 연구들이 나타났고, 연구의 중심도 창세기 1장보다는 시가서와 예언서 전반으로 확장되어 갔다.<sup>2)</sup> 어떤 모양을 하든지 간에, 이러한 주장들이 내포하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창세기 1장과 성경 여러 부분의 기저에 소위 ‘혼돈과의 전쟁(*Chaoskampf*, *Combat Myth*)’이라는 고대 근동의 신화적 모티프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혼돈과의 전쟁’이란, 폭풍우의 신이 근원적 물이나 용으로 표현되는 혼돈의 존재를 이기고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던 신화적, 문학적 모티프를 말한다.<sup>3)</sup> 본 연구는 창세기 1장과 창세

---

1985), 2. 그러나 피터 매슈니스트(P. Machinist)가 주장하듯이, 이 주제는 궁켈이 처음으로 가장 심도 있게 연구했고, 후속 연구들도 대부분 궁켈의 연구에 대한 반응을 어떤 식으로든지 포함한다. 참조, P. Machinist, “Foreword”, H. Gunkel, *Creation and Chaos in the Primeval Era and the Eschaton: A Religio-Historical Study of Genesis 1 and Revelation 12*, K. W. Whitney Jr., tran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6), xv-xx, 특히 xvii; J. Day, *God’s Conflict with the Dragon and the Sea*, 2.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에 대한 제2 성전기까지의 전승사와 현대 성서학 연구사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K. W. Whitney, *Two Strange Beasts: Leviathan and Behemoth in Second Temple and Early Rabbinic Judaism*, Harvard Semitic Monographs 63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6), 1-30. 또한 한글로 정리된 유용한 연구사가 비교적 최근에 나왔다: 방기민, “‘하나님의 싸움’ 모티프 연구로의 초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6 (2020), 7-40.

- 2) 물론 이 주제에 관한 궁켈의 연구가 이미 창 1장을 넘어, 시가서와 예언서, 심지어 신약까지를 망라했다. 특히 H. Gunkel, *Creation and Chaos in the Primeval Era and the Eschaton*, 21-77을 보라.
- 3) 이 모티프의 근거가 된다고 여겨지는 메소포타미아의 에누마 엘리쉬와 우가릿의 바알 신화의 주인공들은 모두 폭풍우의 신들로 여겨진다. 레반트 지역의 바알(하닷)이 폭풍우의 신이라는 것에는 거의 이견이 없지만, 마르둑의 정체에 관해서는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다음의 학자들은 마르둑이 농업을 이롭게 하는 신인 것은 맞지만, 계절의 강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로를 짓고 보존하는 신으로 본다: T. Oshima, “The Babylonian God Marduk”, G. Leick, ed., *The Babylonian World*, Routledge Worlds (New York: Routledge, 2007), 348-360, esp. 352 and 357 n.27; D. Schwemer, “The Storm-Gods of the Ancient Near East: Summary, Synthesis, Recent Studies: Part I”, *JANER* 7:2 (2008), 127-128. 그러나 훨씬 더 많은 학자들은 마르둑을 폭풍우의 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T. Jacobsen, “The Battle between Marduk and Tiamat”, *JAOS* 88 (1968), 104-108, esp. 105-106; T. Abusch,

기 1장이 속해 있는 제사장 문서에 이러한 문학적 모티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주장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면, 창세기 1장이 메소포타미아나 레반트 지역의 우주론, 종교, 정치 체제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는 견해에 대한 근거는 사라질 것이다.

## 2. 문제의식과 방법론

‘혼돈’(Chaos)이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아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혼돈이라는 개념이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 암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에 레베카 왓슨(R. S. Watson)이 이러한 경향에 반대 의견을 내었다. 왓슨은 많은 학자들이 ‘혼돈과의 전쟁’(Chaoskampfmythos) 개념을 성경에 적용할 때 간과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혼돈’(Chaos)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라틴 문화에서 빌려온 것이고 성경 해석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 혼돈이라는 용어를 성서 학자들이 의인화된 개념인 양 묘사하기 때문에, 이 개념은 오히려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궁궐 이후의 많은 성서 학자들이 에누마 엘리쉬에 기반하여 ‘혼돈과의 전쟁’이라는 주제가 창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창조는 에누마 엘리쉬 전체를 고려하면 일부분에 불과하고 가나안 신화들은 ‘혼돈과의 전쟁’이라는 주제를 창조와 연결하지 않고 있다. 셋째, ‘전쟁’이라는 개념이 오해를 야기한다. 왓슨이 보기에, 전쟁이라는 단어는 동등한 두 세력을 전제한다. 하지만 시편과 창세기 1

---

“Marduk 𒍪𒌷𒍪”, K. van der Toorn, B. Becking, and P. W. van der Horst, eds.,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DDD)*, 2nd ed. (Leiden: Brill, 1999), 543-549, esp. 548; 쏘킬드 야콥슨(T. Jacobsen)에 따르면, 마르둑의 수메르어의 표의 문자식 표기법인(logographic writing) <sup>d</sup>AMAR.UD를 “태양의 아들”이나 “폭풍우의 아들”로 해석할 수 있지만, 후자가 에누마 엘리쉬의 마르둑 묘사와 잘 맞는다고 주장한다. 브리쉬(N. Brisch)는 야콥슨의 이 어원 분석을 부정한다: N. Brisch, “Marduk (god)”, <http://oracc.museum.upenn.edu/amgg/listofdeities/marduk/> (2022.7.30.). 마르둑의 어원이 어떻게든 간에, 브리쉬는 에누마 엘리쉬 초반에 마르둑이 아직 신들의 왕이 되고 여러 신들의 특징을 소유하기 전에 이미 폭풍우 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예를 들면, IV:39-50). 에누마 엘리쉬의 아카드어 원문 대조, 본문 분석, 영문 번역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W. G. Lambert, *Babylonian Creation Myths*, Mesopotamian civilizations 16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3). 한글 번역과 간단한 해설은 다음에 잘 나타나 있다: 민영진, “바빌로니아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쉬>의 번역과 주해”, 『신학과 세계』 7 (1981), 273-298; 제임스 B. 프리처드 편,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강승일 외 역 (서울: CLC, 2016), 90-103.

장을 포함한 많은 성경 본문에는 어떤 인격화된 존재도 야훼의 적수로 표현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왓슨은 많은 선행 연구들에 나오는 성경 본문과 고대 근동 문학 간의 비교가 더 엄밀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너무 많은 학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확실하지 않은 유사성에서 성경 밖에 있는 주제들을 찾아내고, 이를 성경 본문에 적용한다는 것이다.<sup>4)</sup>

왓슨의 주된 연구 범위는 시편이었지만, 제사장 문서 연구에도 왓슨의 지적을 적용할 수 있다. 비교 연구적인 관점에서, 이 모티프에서 의인화되어 있는 혼돈이 제사장 문서 연구에 적용되기 적합한 개념인지 반추가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제사장 문서처럼 저자가 꼼꼼하게 줄거리를 전개해 나가는 내러티브 장르에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문화에 있던 전통적인 문학 주제들을 발견하고 비교 연구를 수행할 때, 성급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많은 선행 연구가,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를 암시한다고 여겨지는 많은 본문들을 개별적으로 연구한다. 그 후, 각각의 본문에서 나온 결론들을 하나의 이스라엘 종교 문화와 신화 전통을 (재)구성하기 위해 종합한다. 그래서 창세기 1:1-2도 그 본문이 마치 독립된 본문인 것처럼 개별적으로 다루어졌다가, 보다 넓은 범위의 고대 이스라엘 전통을 재구성하기 위해 다른 성경 본문들과 연결된다.<sup>5)</sup> 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창세기 1:1-2가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면서도, 그것이 이 주제에 대한 제사장 문서 전체의 생각을 알기에 충분한 것처럼 언급된다.

하지만 오경 비평의 관점에서, 이 본문은 모두 제사장 문서라는 하나의 역사 내러티브의 한 부분이다. 현재 롤프 렌토르프(R. Rendtorff)와 그의 제자였던 에어하르트 블룸(E. Blum)의 영향으로,<sup>6)</sup> 오경의 정경적 형태가 문학적으로 독립된 네 개의 문서로 이루어졌다는 문서설이 많은 반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야훼 문서나 엘로힘 문서와는 달리, 제사장 문서만큼은 여전히 문서설을 인정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문서설을 부정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하나

4) 이 문단은 다음을 요약한 것이다. R. S. Watson, *Chaos Uncreated: A Reassessment of the Theme of "Chaos" in the Hebrew Bible*, BZAW 341 (Berlin: de Gruyter, 2005), 12-31.

5) 대표적으로 J. Day, *God's Conflict with the Dragon and the Sea*. 참조, K. Schmid, *A Historical Theology of the Hebrew Bible*, P. Altmann, trans. (Grand Rapids, MI: Eerdmans, 2019), 308. 콘라드 슈미트(K. Schmid)도 창 1장이 제사장 문서나 오경 문서에 속한 한 부분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에 관해 비판하고 있다.

6) R. Rendtorff, *The Problem of the Process of Transmission in the Pentateuch*, J. J. Scullion, trans., JSOTSup 89 (Sheffield: JSOT Press, 1990); E. Blum,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WMANT 57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4); E. Blum,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ZAW 189 (Berlin: de Gruyter, 1990).

의 일관된 내러티브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sup>7)</sup> 그러므로 창세기 1:1-2는 제사장 본문의 다른 부분과 긴밀한 줄거리를 통해 일관된 사상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 이전에 제사장 문서의 맥락에서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 창세기 1:1-2만으로 ‘혼돈과의 전쟁’과 관련한 ‘제사장 문서’의 신학을 언급하는 것은, 오경 비평과 내러티브 연구의 관점에서 불완전하다.<sup>8)</sup>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아래에서, 창세기 1:1-2와 8:1,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의 제사장 문서 층을 다룰 것이다. 이 세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 세 본문 모두 제사장 문서에 속하므로, 일관된 사상을 담고 있다. 둘째, 아래서 언급될 학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 본문은 폭풍우의 신이 직접 바람으로 근원적 물을 상대하는(다른 말로 하면,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본 논문은, 이 세 본문이 개별적으로도 야훼를 폭풍우의 신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고로 세 본문이 각각 또 함께,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를 상기시키

7) 제사장 문서가 독립된 문서가 아닌 편집층이라는 주장은 다음을 보라: I. Engnell, *A Rigid Scrutiny: Critical Essays on the Old Testament*, J. T. Willis, trans.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1969), 50-67; R. Rendtorff, *The Problem of the Process of Transmission in the Pentateuch*, 136-170;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294-325; E. Blum,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219-360. 이에 대한 반론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G. I. Davies,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Exodus: Reflections on the Theses of Erhard Blum”, M. V. Fox, et al., eds., *Texts, Temples, and Traditions: A Tribute to Menahem Haran*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6), 78-84; E. Nicholson, *The Pentateuch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Legacy of Julius Wellhause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205-215; B. J. Schwartz, “The Priestly Account of the Theophany and Lawgiving at Sinai Texts”, M. V. Fox, et al., eds., *Texts, Temples, and Traditions: A Tribute to Menahem Haran*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6), 103-134; J. S. Baden,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Renewing the Documentary Hypothesi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169-192. 이 주제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 목록은 다음을 참조하라: K. Schmid, “Has European Scholarship Abandoned the Documentary Hypothesis? Some Reminders on Its History and Remarks on Its Current Status”, T. B. Dozeman, K. Schmid, and B. J. Schwartz, eds., *The Pentateuch: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urrent Research*, FAT 78 (Tübingen: Mohr Siebeck, 2011), 17-30, 특히 18; C. Nihan, *From Priestly Torah to Pentateuch: A Study in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Leviticus*, FAT 2/25 (Tübingen: Mohr Siebeck, 2007), 1. 슈미트는 현재 유럽 학계에서도 P를 편집층으로 간주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8) 본 논문의 결론과 다르지만, 다음의 세 학자는 위의 성경 본문을 제사장 문서 내의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많지 않은 예이다. B. F. Batto, *Slaying the Dragon: Mythmaking in the Biblical Tradit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73-127; K. L. Sparks, “‘Enūma Elish’ and Priestly Mimesis: Elite Emulation in Nascent Judaism”, *JBL* 126 (2007), 625-648; P. K.-K. Cho, *Myth, History, and Metaphor in the Hebrew Bib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이 중에서도 버나드 바토(B. F. Batto)는 제사장 문서의 범위 안에서 창 1:1-2와 8:1, 그리고 출 14:21을 모두 다루는 드문 예이고, 나머지 두 학자는 창 8:1을 제외한 두 본문을 다룬다.

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본 논문이 문제 삼는 연구들에서, 고대 근동 문학 모티프의 차용이 이방의 종교, 문화, 지배층을 사상적, 문학적으로 전복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은 너무 상투적이어서,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논쟁적’(polemic)이라는 표현만 사용할 뿐, 성경 본문이 정확히 무엇을 전복시키려고 했는지 자세히 거론하지 않는다.<sup>9)</sup> 대신, 다신교에 대항한 유일신론적 반응, 이방(바벨론)의 발전된 문화로부터 민족적 정체성 지키기,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외세에 대한 회화화 등 중 하나를 간단하게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경우는 있다.<sup>10)</sup> 제사장 문서가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를 환기시키지 않는다는 본 논문의 결론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상투적인 언급들에 대한 반박을 내포할 것이다.

### 3. 창세기 1:2

창세기 1:2를 에누마 엘리쉬의 모티프를 빌려왔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에누마 엘리쉬의 악역인 메소포타미아의 여신 티아맛과 창세기 1:2의 근원적 물인 תהו(테후)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에 관하여,

9) 다음은 예외에 속한다. K. L. Sparks, “‘Enūma Elish’ and Priestly Mimesis”, 642-648.

10) 위의 세 성경 본문 중 하나 이상이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를 차용하면서 종교적, 문화적, 혹은 정치적 정체성을 지키려 했다는 간단한 언급은 다음을 참조하라. 이환진, “‘마르헤페트’를 ‘신들의 싸움’ 신화로 읽기: 하느님의 바람이 물 위에 내리꽃다”, 『성경원문연구』 9 (2001), 125-136; B. Otzen, “The Use of Myth in Genesis”, B. Otzen, H. Gottlieb, and K. Jeppesen, eds., *Myths in the Old Testament*, F. Cryer, trans. (London: SCM, 1980), 22-61, 특히 39; B. Alster, “Tiamat תהו”, *DDD*, 867-869, 특히 869; J. Scurlock, “Chaoskampf Lost-Chaoskampf Regained: The Gunkel Hypothesis Revisited”, J. Scurlock and R. H. Beal, eds., *Creation and Chaos: A Reconsideration of Hermann Gunkel’s Chaoskampf Hypothesis*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3), 257-268; P. K.-K. Cho, *Myth, History, and Metaphor in the Hebrew Bible*, 4-5, 78-79, 126-132. 물론 창 1장이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차용했다고 보는 학자들 모두가 외부의 종교나 정치 세력에 대한 논쟁적 목적을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B. F. Batto, *Slaying the Dragon*, 73-101, 특히 81; K. Schmid, *The Old Testament: A Literary History*, L. M. Maloney, trans. (Minneapolis: Fortress, 2012), 111; K. Schmid, *A Historical Theology of the Hebrew Bible*, 305, 307, 315-316. 예헤즈켈 카우프만(Y. Kaufmann)은 창 1장을 포함한 성경 곳곳의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가 가나안 신화의 영향이라고 보지만(62-63쪽), 여러 곳에서 성경에는 이방 신화에 대한 논쟁이 없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Y. Kaufmann, *The Religion of Israel: From Its Beginnings to the Babylonian Exile*, M. Greenberg, trans. and ab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20, 111, 240-241, 441. 카우프만에게 이방 신화와의 논쟁이 성경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 종교에서 유일신론은 갑자기 등장한 선지자적 존재인 역사적 모세와 함께 빠른 시간 자리를 잡으면서, 이 논쟁이 성경(오경과 선지서)이 쓰이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종교 내에서 끝났기 때문이라는 그의 독특한 이스라엘 종교사관에 기인한다: *Ibid.*, 특히 223-231.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어 תְּהוֹם와 티아맛의 연관성을 과장하지 않으려 한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메소포타미아의 티아맛은 메소포타미아 우주론의 근원적 물(바다)이 신격화 되고 의인화 되어 나타난 것이지만 창세기 1:2의 תְּהוֹם은 보통 명사로서 사물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지만, 창세기 1:2가 에누마 엘리쉬로부터 마르둑과 티아맛의 싸움을 빌려왔다는 주장의 결정적 반론이 되지 못한다. 창세기 1:2가 에누마 엘리쉬로부터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를 가져왔다는 주장을 펼치는 학자들도, 심지어 이를 초기에 주장했던 궁켈조차도, 이 점을 간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sup>11)</sup>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서 모티프를 빌려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스라엘 종교의 유일신론에 맞게 변형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 자체는 논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메소포타미아 신화로부터, 특히 에누마 엘리쉬로부터 직접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를 차용했다는 주장에서, 증명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תְּהוֹם을 아카드어의 신명 Ti'āmat으로부터 직접 빌려왔다는 주장이다. Ti'āmat의 i는 히브리어에서 강세 전에 음가를 잃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תְּהוֹם에서는 사라졌고 장모음 ā는 소위 ‘가나안어 모음 변화’(Canaanite Shift)에 의해 장모음 ō로 변했다는 것이다.<sup>12)</sup>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이 주장은 사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몇몇 학자들,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츠무라(D. T. Tsumura)에 의해서 밝혀졌다. 일단 아카드어 명사의 여성형에서 빌려왔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왜 여성 어미가 빠졌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sup>13)</sup> 또 아카드어에서 빌려온 명사에서 ‘알렘(’)'이 어떻게

11) H. Gunkel, *Creation and Chaos in the Primeval Era and the Eschaton*, 80; J. D. Levenson, *Creation and the Persistence of Evil: The Jewish Drama of Divine Omnipot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3-13; B. F. Batto, *Slaying the Dragon*, 75-84; K. L. Sparks, “‘Enūma Elish’ and Priestly Mimesis”, 629-632; K. Schmid, *A Historical Theology of the Hebrew Bible*, 316. 로버트 카와시마(Robert S. Kawashima)는 에누마 엘리쉬와 창 1:2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제사장 문서의 사상이 에누마 엘리쉬와 같은 전승들을 공유하고 있고, 창 1:2는 그래서 에누마 엘리쉬의 사상을 변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그는 제사장 문서가 대항하는 사상에 대한 대표로서 에누마 엘리쉬와 제사장 문서의 창조를 비교한다. R. S. Kawashima, “The Priestly Tent of Meeting and the Problem of Divine Transcendence”, *JR* 86 (2006), 226-257, 특히 233-234. 창 1장이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가나안 신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카우프만도 제사장 문서가 주변 문화의 신화를 차용하여 변형시켰다는 점에서는 이들과 다르지 않다. 참조, Y. Kaufmann, *The Religion of Israel*, 60-63, 67-78.

12) ‘가나안어 모음 변화’(Canaanite Shift)에 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J. Blau, *Phonology and Morphology of Biblical Hebrew: An Introduction*, Linguistic Studies and Ancient West Semitic 2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0), 136-137(§3.5.9.2-3.5.9.3).

13) A. Heidel, *The Babylonian Genesis: The Story of Creation*,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100; D. T. Tsumura, *Creation and Destruction: A Reappraisal of the*

‘헤(h, ḥ)’로 변하는지도 설명이 안 된다.<sup>14)</sup> 이것이 가능하려면, h가 아카드어 철자법에서는 생략되지만 아카드어 구어에서는, ‘최소한 어떤 방언에서는 발음상 남아있었고, 창세기 1장을 쓴 저자가 이 발음을 알고 있었다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복잡하고 불필요한 가정이 필요하다.<sup>15)</sup>

물론 이 두 단어가 어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훨씬 더 간결한 설명이 가능하다. 원시 셈어적(Proto-Semitic) 관점으로 볼 때, 아마 두 단어 모두 thm이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qitālu 형태의 명사, tihām-에서 출발했을 것이다.<sup>16)</sup> 아카드어에서는 h가 유실되기 때문에, 여성형 어미가 첨가된 후 tâmtu < ti'āmatu/tiāmatu < tihāmatu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아카드어에서 ‘바다’라는 뜻을 가진 보통 명사나 신명으로 사용되는 tâmtu가 에누마 엘리쉬에서 축약되지 않은 절대형인 Ti'āmat으로 사용되었다.<sup>17)</sup> 이것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아카드어 보통 명사 šamaš가 신명으로 사용될 때는 절대형인 šamaš로 쓰이는 것과 같

*Chaoskampf Theory in the Old Testament*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5), 37.

- 14) A. Heidel, *The Babylonian Genesis*, 100; D. T. Tsumura, *Creation and Destruction*, 37. 데이(J. Day)는 하이델(A. Heidel)이 주장한 원리를 라합(ḥ, Rahab)의 ‘헤(ḥ, h)’에 적용한다: J. Day, *God's Conflict with the Dragon and the Sea*, 6, 6 n.14. 참조, P. V. Mankowski, *Akkadian Loanwords in Biblical Hebrew*, Harvard Semitic Studies 47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0).
- 15) 참조, A. Heidel, *The Babylonian Genesis*, 100. 물론 에누마 엘리쉬가 구약 성서에 영향을 미치지 이전에, 레반트 지역의 문화가 바벨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음의 학자들을 참조하라: T. Jacobsen, “The Battle between Marduk and Tiamat”, 107; W. G. Lambert, “A New Look at the Babylonian Background of Genesis”, 105; Å. W. Sjöberg, “Eve and the Chameleon”, W. B. Barrick and J. R. Spencer, eds., *In the Shelter of Elyon: Essays on Ancient Palestinian Life and Literature in Honor of G. W. Ahlström*, JSOTSup 31 (Sheffield: JSOT Press, 1984), 217-225, 특히 217-218. 이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알렘(ʾ)’이 ‘헤(h)’로 변하는 것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또 이 주장이 맞다면, 창 1장은 레반트 지역의 문화를 잇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간결하고 그럴 듯하다. 심지어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가 아모리인들을 통해 바벨론에 전달되었다는 주장은 이제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위에 언급된 램버트(W. G. Lambert)의 논문은 사실 두 번째 재출판본이다. 램버트는 이 논문을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재출판할 때마다 후기(postscript)를 덧붙였는데, 첫 번째 후기에서 이미, 바벨론의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가 아모리인들로부터 왔다는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였다: W. G. Lambert, “A New Look at the Babylonian Background of Genesis”, 110-111; D. T. Tsumura, *Creation and Destruction*, 38-41.
- 16) A. Heidel, *The Babylonian Genesis*, 100-101; D. T. Tsumura, *Creation and Destruction*, 42-43.
- 17) /tāmtu/가 신명으로 사용될 때, 절대형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참조, CAD T, 156b-158a(§4).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를 암시하는 마리 문서(A. 1968:3')에서는 Tēmtum으로 쓰였다. 참조, J-M. Durand, “Le mythologème du combat entre le dieu de l'orage et la mer en Mésopotamie”, *Mari* 7 (1993), 41-61, 특히 45; M. Nissinen, *Prophets and Prophecy in the Ancient Near East*, Writings from the Ancient World 12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3), 22.



다.<sup>18)</sup> 히브리어에서는 강세 이전의 개음절에서 원시 히브리어의 단모음 i가 쉘바로 줄어들는 경우가 있으므로(예: רוּע ‘팔’, חוּמור ‘나귀’, עֲבוּדָה ‘노동’ 등), 현재와 같은 형태(*tahōm*)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 תַּהוֹם와 아카드어 티아맛의 형태 차이가 잘 설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תַּהוֹם은 아카드어 Ti’āmat에서 직접 빌려온 것이 아니라, 공통의 어원으로부터 히브리어와 아카드어 내부적으로 각각 발전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켄튼 스팅크스(K. L. Sparks)와 폴 조(P. K.-K. Cho)는 위의 언어 분석을 인정한다. 하지만 제사장 문서의 저자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를 빌려올 때, 아카드어 티아맛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자기 언어(히브리어)에서 어원과 의미상 상응하는 단어를 선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sup>19)</sup> 특히 조(Cho)는, 에누마 엘리쉬와 창세기 1장 간의 다른 유사성을 고려할 때, 창세기 1장이 에누마 엘리쉬와 ‘혼돈과의 전쟁’(자신의 용어로는 ‘바다 신화’) 모티프를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언어 분석에 의존하는 츠무라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먼저 조(Cho)는 하늘 위와 아래로 물을 나누는 ‘궁창’(firmament, רָקִיעַ, 라키아)과 비슷한 개념이 에누마 엘리쉬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가깝다고 논증한다.<sup>20)</sup> 하지만, 제임스 호프마이어(J. K. Hoffmeier)의 주장처럼, 이 ‘궁창’에 상응하는 것이 이집트 전통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조(Cho)의 주장처럼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에누마 엘리쉬의 창조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아니다.<sup>21)</sup>

다음으로, 조(Cho)는 다른 동물 창조 묘사와 달리,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으로 수식되지 않은 ‘큰 바다 짐승들’은 인간 창조만큼 특별한 언급이고, 특별한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는 것과 상응하여, 역시 특별한 창조물인 ‘큰 바다 짐승들’은 신화적 기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sup>22)</sup> 이에 대해 몇 가지 반론이 가능하다. 첫째, 같은 제사장 문서인

18) 참조, D. T. Tsumura, *Creation and Destruction*, 43; S. Helle, “Tiamat (goddess)”, <http://oracc.museum.upenn.edu/amgg/listofdeities/tiamat/> (2022.7.30).

19) K. L. Sparks, “‘Enūma Elish’ and Priestly Mimesis”, 630 n.14; P. K.-K. Cho, *Myth, History, and Metaphor in the Hebrew Bible*, 77-79.

20) P. K.-K. Cho, *Myth, History, and Metaphor in the Hebrew Bible*, 79-80.

21) J. K. Hoffmeier, “Some Thoughts on Genesis 1 & 2 and Egyptian Cosmology”, *JANES* 15 (1983), 39-49, 특히 46. 창 1장이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다는 학자가 호프마이어(J. K. Hoffmeier)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O. Keel and S. Schroer, *Creation: Biblical Theologies in the Context of the Ancient Near East*, P. T. Daniels, trans.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5), 138-142.

22) P. K.-K. Cho, *Myth, History, and Metaphor in the Hebrew Bible*, 80-82.

출애굽기 7:9, 10, 12에서 תנין(탄닌)은 확실히 일반적인 동물이다.<sup>23)</sup> 제사장 문서의 용어 사용이 일관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조(Cho) 자신도 인정하듯이, ‘큰 바다 짐승들’이 창조된 일반적인 동물임이 분명한 창세기 1:21을 굳이 신화적 기원을 가진 동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둘째, 만약 ‘큰 바다 짐승들’의 언급이 특별하다는 조(Cho)의 언급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 특별한 언급이 ‘신화적 기원’을 드러내기 위한 저자의 장치라는 추론의 근거가 본문에서 발견되지 않는다(non sequitur). ‘큰 바다 짐승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언급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창세기 1:21의 언급은 일종의 복선(foreshadowing, anticipatory)과 같은 문학적 장치로서, 출애굽기 7장의 תנין(탄닌)이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이미 창조되어 이집트에 실제로 있던 동물을 가리키고 있음을 확실히 밝히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7장에서 이 동물을 언급하는 부분이 모두 제사장 문서의 연속된 이야기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셋째,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으로 수식되지 않는다는 사실 외에, ‘큰 바다 짐승들’을 특별한 언급으로 만드는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특정 수식어의 부재를 창세기 1:26-28의 인간 창조에 대한 눈에 띄는 언급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한 독해라고 생각된다. 넷째, תנין(탄닌)의 복수 형태인 ‘큰 바다 짐승들’(תנינים, 탄닌임)이 조(Cho)의 말처럼 특정 종(species)의 여러 개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대형 바다 짐승을 통칭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조(Cho)의 주장은 창세기 1장을 제사장 문서의 맥락에서 따로 떼어내어 독립적인 본문처럼 다루는, 위에서 언급한 방법론적 문제를 드러낸다. ‘큰 바다 짐승들’이라는 단어가 신화적 기억을 보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제사장 문서 이야기 안에 내재하는 근거도 없지만, 제사장 이야기 밖에서 근거를 찾아야 할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조(Cho)가 창세기 1:21에서 신화적 기억을 찾았다면, 그것은 그가 제사장 이야기 내적인 증거를 찾기 전에, 제사장 이야기 외적인 요소를 이미 대입했기 때문이다.

에누마 엘리쉬와 관련하여 논한 내용 대부분이 가나안 신화, 특히 우가릿의 바알 신화와 창세기 1장 사이의 관계를 지나치게 친밀하게 보는 견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된다.<sup>24)</sup> 창세기 1:10의 “바다(ים)”는 보통 명사로서 바알의 대적인 암(암무)처럼 의인화 되지 않았다. 성경에서 일반

23) B. S. Child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74), 128.

24) 대표적으로 Y. Kaufmann, *The Religion of Israel*, 62; J. Day, *God's Conflict with the Dragon and the Sea*, 특히 1-61; J. Day, *Yahweh and the Gods and Goddesses of Canaan*, JSOTSup 26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98-107.

적인 “바다”는 창조 이후에 명명된 **יָם**이며, 창조 이전의 물은 성경에서는 **יָם**이 아니라 **אֲבַת־יָם**에 비해 현저하게 드물게 사용되는 **אֲבַת־יָם**이다.<sup>25)</sup>

더욱이, 바알 신화에는 에누마 엘리쉬나 창세기와는 달리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만 있고 ‘창조’ 모티프가 보이지 않는다.<sup>26)</sup> 이에 대해, 존 데이(J. Day)는 성경 다른 부분에서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가 창조 모티프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우가릿과 페니키아의 다른 문헌에서 창조 모티프가 등장하기 때문에, 가나안에도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와 창조 모티프가 이미 결합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변호한다.<sup>27)</sup> 존 레벤슨(J. D. Levenson)도 데이의 논리가 순환적이긴 하지만, 레반트 지역에서 유독 이스라엘만 이 두 모티프를 연결할 리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데이를 지지한다.<sup>28)</sup>

그러나 심지어 레벤슨 자신도 인정하듯이, 현재 있지도 않은 문헌을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논지를 전개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넓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sup>29)</sup> 그리고 창조 모티프가 보이지 않는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는 우가릿 뿐 아니라, 마리와 심지어 수메르 문헌에도 나타난다. 또 카우프만(Y. Kaufmann)이 주장하듯이, 창세기 1:2에는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데이가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야훼가 단지 ‘바람’(רוח)으로 물을 움직인다는 사실 뿐이다.<sup>30)</sup> 조앤 스킬록(J. Scurlock)은 창세기 1장은 에누마 엘리쉬를 모델로 따르면서 우가릿의 엘과 같은 창조신 이미지를 야훼에 덧입히기 위해, 마르둑이나 바알에 해당하는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를 일부러 제거했다고 주장한다.<sup>31)</sup> 이로 볼 때, 창세기 1장이 바알 신화의 모티프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25) 참조, D. T. Tsumura, *Creation and Destruction*, 49-51.

26) J. D. Levenson, *Creation and the Persistence of Evil*, 9-10.

27) J. Day, *God's Conflict with the Dragon and the Sea*, 16-18. 참조, L. R. Fisher, “Creation at Ugarit and in the Old Testament”, *VT* 15 (1965), 313-324;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120; B. F. Batto, *Slaying the Dragon*, 130-131, 133-134. 이러한 입장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반론, 의의는 다음에 잘 정리되어 있다: M. S. Smith, *The Ugaritic Baal Cycle Volume 1: Introduction with Text, Translation and Commentary of KTU 1.1-1.2*, VTSup 55 (Leiden: Brill, 1994), 75-87.

28) J. D. Levenson, *Creation and the Persistence of Evil*, 158-159 n.30.

29) Ibid.

30) J. Day, *God's Conflict with the Dragon and the Sea*, 49-53.

31) J. Scurlock, “Chaoskampf Lost-Chaoskampf Regained”, 268. 스킬록(J. Scurlock)은 이 모티프의 부재를 통해, 창 1장이 에누마 엘리쉬의 전사같은 창조신의 모습에 반대하고 있다는 견해를 펼친다.

#### 4. 창세기 8:1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8:1하반으로부터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와 폭풍우의 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sup>32)</sup>: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개역개정』 창 8:1하반). 그러나 단순히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말렸다는 묘사에서 야훼를 폭풍우의 신으로 특징짓는 것은 성급하다.<sup>33)</sup> 창세기 8:1하반으로부터 폭풍우의 신을 연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이야기,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sup>34)</sup>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서는 상위 신 중 하나인 엔릴이 인간 세상에 홍수를 내린다. 하지만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이야기의 유사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두 이야기에서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는 고사하고, 폭풍우의 신의 모습도 찾기 어렵다.<sup>35)</sup>

먼저, 이전의 많은 학자들이 쏘킬드 야콥슨(T. Jacobsen)의 어원 분석을 따라 엔릴을 대기/바람/폭풍우의 신으로 주장했지만, 엔릴이 메소포타미아 종교사에서 폭풍우의 신으로 간주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sup>36)</sup> 오늘날 피오토르 스타인켈러(P. Steinkeller)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야콥슨이 엔릴의 아카드어 음절식 표기인 <sup>d</sup>En-lil<sub>2</sub>를 혼동하여 수메르어 어원을 찾은 것을 비판한다. 그들은 음절식 표기인 <sup>d</sup>En-lil<sub>2</sub>의 어원은 수메르어가 아니라 셈어인 *lil*이 두 번 반복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한 증거로, 엔릴의 수메르어

32) 창 8:1은 이 논문이 다루는 세 성경 본문 중,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와 관련하여 다루어지는 빈도수가 가장 낮은 본문일 것이다. 창 8:1이 언급되는 이유도 주로, 8:1의 ‘바람’(רוח)을 1:2의 ‘영’(רוח)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H. G. May, “Some Cosmic Connotations of *Mayim Rabbim*, “Many Waters””, *JBL* 74 (1955), 9-21, 특히 14 n.19; B. F. Batto, *Slaying the Dragon*, 85-88; J. Day, *God’s Conflict with the Dragon and the Sea*, 53; M. S. Smith, *The Priestly Vision of Genesis 1*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0), 54, 229 n.102. 스미스(M. S. Smith)는 카와시마가 구두로 자신에게 이 견해를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33) 참조, R. S. Watson, *Chaos Uncreated*, 58.

34) 아트라하시스의 본문, 해석, 해설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W. G. Lambert and A. R. Millard, *Atra-ḫasis: The Babylonian Story of the Flood* (Oxford: Clarendon, 1969).

35) 참조, W. L. Moran, “Atrahasis: The Babylonian Story of the Flood”, *Biblica* 52 (1971), 51-61, 특히 61.

36) T. Jacobsen, “The *lil*<sub>2</sub> of <sup>d</sup>En-lil<sub>2</sub>”, H. Behrens, D. Loding, and M. T. Roth, eds., *DUMU-E<sub>2</sub>-DUB-BA-A: Studies in Honor of Åke. W. Sjöberg*, Occasional Publications of the Samuel Noah Kramer Fund 11 (Philadelphia: Babylonian Section, University Museum, 1989), 267-276; A. R. W. Green, *The Storm-God in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3), 34-41.

표의식 표기가 고대에는 EN.E<sub>2</sub>였다는 사실을 든다.<sup>37)</sup>

엔릴의 어원이 무엇이고 그 어원이 엔릴의 정체를 드러내든 아니든 간에, 적어도 아트라하시스라는 이야기 안에서는 엔릴이 특별히 폭풍우의 신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단 홍수는 인구 수를 줄이기 위한 세 가지 재앙 중 하나일 뿐이다. 또 홍수 재앙과 전체 줄거리에서 엔릴은 폭풍우의 신이라기보다는 신들의 왕으로 나타난다. 물론 엔릴이 홍수를 명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홍수를 일으키는 임무는 메소포타미아와 레반트에서 폭풍우의 신으로 특정되어 있는 아닷(하닷, 핫두)이 수행한다. 엔릴이 하위신인 아닷을 통해서 홍수를 일으키는 것은 그가 폭풍우의 신이어서가 아니라, 신들의 왕이기 때문이다. 에누마 엘리쉬에서 마르дук은 50개의 신명을 부여받는데, 이는 그가 신들의 왕이 된 후에, 다른 신들의 속성과 역할이 그에게 전가된 것을 의미한다.<sup>38)</sup>

물론 제사장 문서의 세계에서는 야훼 이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신적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야훼가 신들의 왕은 아니다.<sup>3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많은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제사장 문서가 그리는 우주에서도 야훼는 궁극적 왕권을 가진 존재이다. 마크 스미스(M. S. Smith)의 모델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서는 많은 신들이나 적어도 그들의 특징 중 일부가 야훼에게 합병되는 “수렴(convergence)”을 통해, 다신교(polytheism)에서 일신숭배(monolatry)를 거쳐 유일신론(monotheism)으로 가는 종교사적

37) P. Steinkeller, “On Rulers, Priests and Sacred Marriage: Tracing the Evolution of Early Sumerian Kingship”, K. Watanabe, ed., *Priests and Officials in the Ancient Near East* (Heidelberg: Universitätsverlag C. Winter, 1999), 103-137, 특히 114 n.36; P. Steinkeller, “More on the Archaic Writing of the Name of Enlil/Nippur”, A. Kleinerman, and J. M. Sasson, eds., *Why Should Someone Who Knows Something Conceal It?: Cuneiform Studies in Honor of David I. Owen on His 70th Birthday* (Bethesda, MD: CDL, 2010), 239-243. 이에 대한 더 많은 참고 문헌과 추가적인 증거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L. Feliu, “Concerning the Etymology of Enlil: the An=Anum Approach”, G. del Olmo Lete, L. Feliu, and A. M. Albà, eds., *Šapal tibnim mû illakū: Studies Presented to Joaquín Sanmartín on the Occasion of His 65th Birthday*, Aula Orientalis-Supplementa 22 (Barcelona: Editorial AUSA, 2006), 229-246. 또한 참조, A. Stone, “Enlil/Ellil (god)”, <http://oracc.museum.upenn.edu/amgg/listofdeities/enlil/> (2022.7.30).

38) Enuma Elish VI:121-VII:144. 램버트는 실제 마르дук이 부여받은 이름이 51개라고 주장한다: W. Lambert, *Babylonian Creation Myth*, 456.

39) 출 12:13과 12:23의 מַשְׁחִיתָ가 예외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מַשְׁחִיתָ의 의미가 ‘파괴자’인지 ‘파괴’인지 불분명하다. 참조, B. D. Sommer, *The Bodies of God and the World of Ancient Isra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76-77. 제사장 문서에서 신적 존재로 해석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다음에서 발견된다: 창 1:26(1인칭 복수, “우리”); 레 16:8, 10, 26(야사셀); 17:7(염소); 18:21(물렛); 20:2-5(물렛). 이들 모두가 실제로 신적 존재였다고 할지라도, 제사장 문서의 저자는 이들의 속성, 역할, 야훼와의 관계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

발전 과정을 거쳤다.<sup>40)</sup> 성경 본문도, 특히 소위 신명기 역사서나 많은 포로기 이전 선지서들이, 이 과정이 포로기 이후 어떤 시점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포로기 이전부터 서서히, 그러나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암시한다.<sup>41)</sup> 이러한 이스라엘 종교사의 발전 모델을 고려할 때, 창세기 8:1에서 야훼가 바람을 보내는 장면은, 그가 폭풍우의 신이라서가 아니라 궁극적이고 유일한 통치자로서 폭풍우의 신의 기능을 통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sup>42)</sup>

또한 아트라하시스에서 홍수의 생존자인 아트라하시스에게 방주 짓는 법을 알려준 것은 또 다른 상위 신인 에아(Ea)이다. 만약 야훼를 홍수를 내린 엔릴과 비교한다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한 야훼는 에아와 비교해야 한다(에아는 확실히 폭풍우의 신이 아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는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가 보이지 않는다. 엔릴이 폭풍우의 신이 아니듯, 제사장 문서의 홍수 이야기에도 ‘혼돈’과 싸우는 폭풍우의 신은 보이지 않는다.

## 5. 출애굽기 14:21

제사장 문서의 다른 부분도, 야훼를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에 속한 폭풍우의 신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제사장 문서에서는 야훼의 신현현이 결코 천둥이나 번개를 동반하지 않는다.<sup>43)</sup> 제사장 문서에 속하는 출애굽기 40:36-37이나 민수기 10:11-12에서 야훼가 구름과 함께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구름은 결코 날씨와 연결된 적이 없고, 이스라엘의 이동을 지시

40) M. S. Smith, *The Early History of God: Yahweh and the Other Deities in Ancient Israel*, 2nd ed., Biblical Resource Serie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2), 7-8, 182-199. 비슷하게, T. Frymer-Kensky, *In the Wake of the Goddesses: Women, Culture, and the Biblical Transformation of Pagan Myth* (New York: Free Press, 1992), 86-88; P. Machinist, “Once More: Monotheism in Biblical Israel”, *JISMOR* 1 (2005), 25-39.

41) 참조, M. S. Smith, *The Early History of God*, 195-199.

42) 이것은 야훼가 제사장 문서에서 폭풍우의 신으로 묘사되지 않는다는 본 논문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 대니얼 슈베머(D. Schwemer)는 어떤 경우에 폭풍우의 신과 성격이 겹치는 신을 폭풍우의 신으로 간주하는 것은 고대 근동 종교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D. Schwemer, “The Storm-Gods of the Ancient Near East: Summary, Synthesis, Recent Studies: Part I”, 125).

43) 예를 들어, 제사장 문서에 속하는 출 24:17과 43:34-38과 제사장 문서가 아닌 출 19:16(아마 야훼 문서)을 비교해 보라. 이 둘을 비교할 때, 겔 1:4로 제사장 문서의 내용을 보충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신호등 역할을 한다.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이 모티프를 직접 찾아냈다고 주장한다.<sup>44)</sup> 출애굽기 14장이 제사장 문서를 포함해,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자료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한다. 오경 형성 과정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학자들도 출애굽기 14:21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sup>45)</sup>:

출 14:21aα, b(제사장 문서)

ויט משה את ידו על הים ויבקעו המים

모세는 그의 팔을 바다 위에 폈다. 그리고 물이 갈라졌다(사역).

출 14:21aβ-γ(야훼 문서)

ויוֹלךְ יהוה את־הים ברוח קדים עזה כל הלילה וישם את־הים להרבה

야훼가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물러가게 하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사역).

특이한 점은 야훼 문서의 묘사와 달리, 제사장 문서에서는 바람이 언급조차 되지 않고 바다를 가르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선 두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의 야훼는 폭풍우의 신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

물론,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에서 폭풍우의 신이 꼭 바람으로 적을 물리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알 신화에서 바알은 암이나 못(못투)과 싸울 때, 바람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를 사용한다.<sup>46)</sup> 하지만 출애굽기 14장의 다른

44) B. F. Batto, *Slaying the Dragon*, 102-127; T. B. Dozeman, *Commentary on Exodu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9), 300, 304, 310; W. H. C. Propp, *Exodus 1-18*, Anchor Bible 2 (New York: Doubleday, 1999), 554-562; P. K.-K. Cho, *Myth, History, and Metaphor in the Hebrew Bible*, 126-132. 꼭 출 14장을 중심에 놓지 않더라도 출 15장이나 시편에 나오는 출애굽 모티프를 가나안의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의 영향으로 보는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112-144; J. Day, *God's Conflict with the Dragon and the Sea*, 96-101; D. S. Ballentine, *The Conflict Myth and the Biblical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90-98.

45) J. S. Baden,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193-213, 특히 201; M. Noth, *Exodus: A Commentary*, OTL, J. S. Bowden, tran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2), 105-106; B. S. Childs, *The Book of Exodus*, 220; W. H. C. Propp, *Exodus 1-18*, 480, 550-554; E. Blum,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256-257; J. C. Gertz, “The Miracle at the Sea: Remarks on the Recent Discussion about Origin and Composition of the Exodus Narrative”, T. B. Dozeman, C. A. Evans, and J. N. Lohr, eds., *The Book of Exodus: Composition, Reception, and Interpretation*, VTSup 164 (Leiden: Brill, 2014), 91-120, 특히 97-100; T. B. Dozeman, *Commentary on Exodus*, 300-305.

46) 바알이 암과 싸울 때 사용한 무기는 다음에 나온다: *KTU* 1.2 IV:11-27. 바알 신화에 관한

제사장 문서 부분에서도 가나안이나 메소포타미아 신화와의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 야훼가 가르치는 것은 적이 아니라 자연 상태의 바다이다. 야훼의 적은 야훼가 가르친 바다가 아니라 야훼가 가르친 바다에 빠져 죽은 파라오의 군사들, 즉 이집트이다.<sup>47)</sup> 바다는 제사장 문서의 창조와 홍수 기사에서 야훼의 적이 아니었던 것처럼, 홍해 기사에서도 정복해야 할 적이 아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바다는 야훼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위협은 이집트 군대였다. 이집트가 쫓아오지만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바다를 쉽게 우회했을 것이다.<sup>48)</sup> 따라서, 이 본문은 데브라 발렌타인(D. S. Ballentine)이 “야훼 대 인간 대적(Yahweh versus Human Enemies)”이라고 부르는 다른 사례들과 구분되어야 한다.<sup>49)</sup> 그 사례들에서는 인간 대적이 용이나 그에 준하는 신화적 대적과 명백히 동일시되었다.<sup>50)</sup> 하지만 출애굽기 14장에는 그러한 동일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바다는 제사장 문서에서 한 번도 행위의 주체인 적이 없고, 언제나 야훼의 도구로만 등장한다.

바토(B. F. Batto), 조(Cho), 도즈만(T. B. Dozeman)은 출애굽기 14장을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와 연결하기 위해 ‘쪼개다’(צָקַק)라는 동사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sup>51)</sup> 그러나 바알이 암을 갈기갈기 찢었을 수는 있지만, 야훼가 14:16, 21에서 바다를 양쪽으로 가르 것처럼, 암을 둘로 쪼개지 않았다.<sup>52)</sup> 마르둑의 경우, 그가 티아맛을 둘로 가르 것은 사실이다.<sup>53)</sup> 그러나 단

---

한글 번역은 제임스 B. 프리처드 편, 『고대 근동 문학 선집』, 229-295, 특히 245-246, 294를 참조하라. 영어 번역과 해설은 다음을 참조하라: D. Pardee, “The Ba’lu Myth”, W. W. Hallo, ed., *The Context of Scripture*, vol. 1 (Leiden: Brill, 1997), 241-274; M. S. Smith, *The Ugaritic Baal Cycle*.

47) 고로, 제사장 문서의 야훼가 자신의 적만 아니라 바다도 난폭하게 다루었다는 발렌타인(D. S. Ballentine)의 주장은 조금 과한 읽기로 생각된다. D. S. Ballentine, *The Conflict Myth and the Biblical Tradition*, 95-96.

48) 대조, P. K.-K. Cho, *Myth, History, and Metaphor in the Hebrew Bible*, 131.

49) D. S. Ballentine, *The Conflict Myth and the Biblical Tradition*, 98-108.

50) 예를 들면, 사 30:7; 51:9-11; 시 87:4; 겔 29:2-6.

51) B. F. Batto, *Slaying the Dragon*, 110, 136; P. K.-K. Cho, *Myth, History, and Metaphor in the Hebrew Bible*, 129; T. B. Dozeman, *Commentary on Exodus*, 300, 304. 이들에 앞서 프랭크 무어 크로스(F. M. Cross)가 비슷한 주장을 했다: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131-133.

52) 이것은 바알이 암을 물리칠 때(KTU 1.2:IV.27-29) 나오는 yšt와 bt̄라는 우가터어 표현의 어근과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위의 해석은 어근을 각각 št̄와 btt로 해석한 것이다. 참조, P. Bordreuil and D. Pardee, *A Manual of Ugaritic*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9), 160, 163-164; M. S. Smith, *The Ugaritic Baal Cycle*, 352-354, 357. 하지만 yšt의 어근을 무엇으로 보든, 둘로 쪼갰다는 의미는 유추하기 어렵다.

53) 에누마 엘리쉬, IV:135-138.



순히 적을 둘로 갈랐다는 사실이 출애굽기 14장과 에누마 엘리쉬 사이의 연관성을 증명해주지는 못한다. 게다가, 마르дук이 티아맛의 사체로부터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가 티아맛을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갈랐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야훼는 출애굽기 14장에서 바다를 수직으로 갈라 길을 내었다. 물론 성경 기사와 고대 근동 신화 사이의 관련성을 증명할 때, 모든 부분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렇게 계속되는 차이를 간과할 수는 없다.

## 6. 나가는 말

본 연구는,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창세기 1:1-2; 8:1; 출애굽기 14장에서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보였다. 이들 본문에서 야훼는 폭풍우의 신으로 묘사된 적이 없고, 물은 한 번도 악으로 묘사되거나 인격화된 적이 없다. 물론, 이런 차이들이 반드시 이 본문들의 저자가 그 모티프나 이웃 나라들의 신화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도 성경 저자가 가나안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를 빌려왔다거나,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들과 공유하던 신화적 전통이나 문학적 관습 안에 이미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던 모티프를 차용하였거나 하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다. 그러한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에 관한 의견 차이는 조금 더 실증적인 언어적, 문헌적 증거들이 발견되기까지는 좁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신, 위 세 본문들이 속한 제사장 문서에 그런 모티프들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그 모티프들이 정말로 있다고 해도 더 이상 그것들을 고대 근동 신화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기에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와의 비교 연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종교적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고대 근동 문학의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제사장 문서는 저자가 고유한 방식으로 자료들을 세심하게 배열하고 구성한 여느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그 작품 내의 세계가 먼저 오롯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문학적 주장이다. 단편적인 몇몇 유사성은 한 작품을 다른 작품/장르에 기대어 해석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제사장 문서의 저자가 정말로 출애굽기 14장이 홍해 사건에서 이집트를 태초의 바다-괴물과 동일시하기 원했다고 볼 근거가 있는가?

아주 작은 유사성만으로, 어떤 신화 전체의 내용이나 줄거리를 다른 문학 작품에 대입하는 것은 불공평한 읽기이다. 이것은 마치 성경 저자는 이미 존재하는 신화의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는 자신의 서사를 구성할 수 없다는 말과도 같다.<sup>54)</sup> 출애굽기 14장이나 창세기에 있다고 주장되는 신화적 모티프들은 제사장 문서의 형식과 줄거리에 맞추어져, 원래 신화적 모티프로서 가지고 있던 형식과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사장 문서의 이야기를, 특히 원역사 바깥에 있는 출애굽기 14장을, ‘역사화된 신화’(historicized myth)라고 간단히 정의내릴 수 없다.<sup>55)</sup> 제사장 문서는 역사 내러티브 장르로서,<sup>56)</sup> 에누마 엘리쉬나 바알 신화와는 다른 장르이다. 그 복잡성과 독특성은 신화적 패러다임으로부터 독립되어, 역사 내러티브로서 그 자체의 형식, 줄거리, 구조에 따라 정당한 분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론이 가진 방법론적 함의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치려고 한다. 고대 저자들이 사용하던 전통적 문학 모티프들이 존재했다는 것도 분명하고, 비교 연구를 통해 그것들을 잘 파악하는 일은, 현재는 그 맥이 끊겨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고대의 문학적 장치들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논문도 비교 연구의 방법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비교 연구는 한 문학 작품 내에 있는 전통적 문학 모티프의 존재를 탐지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론처럼 그것의 부재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다. 비교 연구는 문학 작품 간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유사성과 파편적인 유사성의 구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역사화된 신화(와 신화

54) 최근의 제사장 문서 연구에서, 소위 짧은 P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고대 근동 신화의 전형적인 구조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참조, C. Nihan, *From Priestly Torah to Pentateuch*, 31-68, 특히 59-68. 물론 크리스토프 니한(C. Nihan)도 제사장 문서가 신화적 모티프들을 재해석한다고 인정하지만, 니한의 제사장 문서 저자는(특히 66-68쪽) 신화적(회귀적, 순환적) 사고방식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과 반대로, 제사장 문서가 신화적 사고를 떠나 역사적 사고로 이행하는, 인식론적 혁명의 예라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은 다음을 참고하라: R. S. Kawashima, “The Priestly Tent of Meeting and the Problem of Divine Transcendence”, 226-257, 특히 226-231.

55) 성경 안에 있는 ‘역사화된 신화’에 관한 주장은 다음을 참조하라: W. H. C. Propp, *Exodus 1-18*, 560-561; R. S. Kawashima, “The Priestly Tent of Meeting and the Problem of Divine Transcendence”, 230-231, 255-256; J. D. Levenson, *Creation and the Persistence of Evil*, 88-140;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120, 143-144, 164-165; T. B. Dozeman, *Commentary on Exodus*, 300; J. Day, *God’s Conflict with the Dragon and the Sea*, 88-140; M. Fishbane, *Biblical Myth and Rabbinic Mythmak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58-62.

56) 제사장 문서의 장르와, 장르로서의 역사 내러티브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S. Chavel, *Oracular Law and Priestly Historiography in the Torah*, FAT 2/71 (Tübingen: Mohr Siebeck, 2014), 265-270.

화된 역사)'의 관점은 구속사에 대한 관심이 저물어가고 창조 신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구속을 창조의 완성으로 읽으며 구속사와 창조 신학을 종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학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선택지를 공식적, 간-문화적(intercultural), 간-텍스트적(intertextual)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간의 역사적, 문화적 교류의 실제적 결과로 제시하려면,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신중한 비교 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Keywords)

혼돈과의 전쟁, 에누마 엘리쉬, 바알 신화, 고대 근동, 제사장 문서.

Combat Myth(*Chaoskampf*), Enuma Elish, Baal Cycle, Ancient Near East, Priestly Source.

(투고 일자: 2022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2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10월 17일)

<참고문헌>(References)

- 민영진, “바빌로니아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쉬>의 번역과 주해”, 『신학과 세계』 7 (1981.10), 273-298.
- 방기민, “‘하나님의 싸움’ 모티프 연구로의 초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6 (2020), 7-40.
- 이환진, “‘마르헤페트’를 ‘신들의 싸움’ 신화로 읽기: 하느님의 바람이 물 위에 내리꽃다”, 『성경원문연구』 9 (2001), 125-136.
- 프리처드, 제임스 B. 편,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강승일 외 역, 서울: CLC, 2016.
- Abusch, T., “Marduk מַרְדּוּךְ”, K. van der Toorn, B. Becking, and P. W. van der Horst, eds.,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DDD)*, 2nd ed., Leiden: Brill, 1999, 543-549.
- Alster, B., “Tiamat תְּהוֹם”, K. van der Toorn, B. Becking, and P. W. van der Horst, eds.,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DDD)*, 2nd ed., Leiden: Brill, 1999, 867-869.
- Baden, J. S.,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Renewing the Documentary Hypothesi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 Ballentine, D. S., *The Conflict Myth and the Biblical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Batto, B. F., *Slaying the Dragon: Mythmaking in the Biblical Tradit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 Blau, J., *Phonology and Morphology of Biblical Hebrew: An Introduction*, Linguistic Studies and Ancient West Semitic 2,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0.
- Blum, E.,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WMANT 57,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4.
- Blum, E.,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ZAW 189, Berlin: de Gruyter, 1990.
- Bordreuil, P. and Pardee, D., *A Manual of Ugaritic*,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9.
- Brisch, N., “Marduk (god)”, <http://oracc.museum.upenn.edu/amgg/listofdeities/marduk/> (2022.7.30.).
- Chavel, S., *Oracular Law and Priestly Historiography in the Torah*, FAT 2/71, Tübingen: Mohr Siebeck, 2014.
- Childs, B. S.,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Press, 1974.
- Cho, P. K.-K., *Myth, History, and Metaphor in the Hebrew Bibl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 Cross, F.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Davies, G. I.,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Exodus: Reflections on the Theses of Erhard Blum”, M. V. Fox, et al., eds., *Texts, Temples, and Traditions: A Tribute to Menahem Haran*,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6, 78-84.
- Day, J., *God’s Conflict with the Dragon and the Sea: Echoes of a Canaanite Myth in the Old Testament*, University of Cambridge Oriental Publications 3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Day, J., *Yahweh and the Gods and Goddesses of Canaan*, JSOTSup 26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Dozeman, T. B., *Commentary on Exodu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9.
- Durand, J.-M., “Le mythologème du combat entre le dieu de l’orage et la mer en Mésopotamie”, *Mari* 7 (1993), 41-61.
- Engnell, I. *A Rigid Scrutiny: Critical Essays on the Old Testament*, J. T. Willis, trans.,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1969.
- Feliu, L., “Concerning the Etymology of Enlil: the An=Anum Approach”, G. del Olmo Lete, L. Feliu, and A. M. Albà, eds., *Šapal tibnim mû illakū: Studies Presented to Joaquín Sanmartín on the Occasion of His 65th Birthday*, Aula Orientalis-Supplementa 22, Barcelona: Editorial AUSA, 2006, 229-246.
- Fishbane, M., *Biblical Myth and Rabbinic Mythmak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Fisher, L. R., “Creation at Ugarit and in the Old Testament”, *VT* 15 (1965), 313-324.
- Frymer-Kensky, T., *In the Wake of the Goddesses: Women, Culture, and the Biblical Transformation of Pagan Myth*, New York: Free Press, 1992.
- Gertz, J. C., “The Miracle at the Sea: Remarks on the Recent Discussion about Origin and Composition of the Exodus Narrative”, T. B. Dozeman, C. A. Evans, and J. N. Lohr, eds., *The Book of Exodus: Composition, Reception, and Interpretation*, VTSup 164, Leiden: Brill, 2014, 91-120.
- Green, A. R. W., *The Storm-God in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3.
- Gunkel, H., *Creation and Chaos in the Primeval Era and the Eschaton: A Religio-Historical Study of Genesis 1 and Revelation 12*, K. W. Whitney Jr., tran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6.
- Heidel, A., *The Babylonian Genesis: The Story of Creation*,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Helle, S., “Tiamat (goddess)”, <http://oracc.museum.upenn.edu/amgg/listofdeities/tiamat/> (2022.7.30.).

Hoffmeier, J. K., “Some Thoughts on Genesis 1 & 2 and Egyptian Cosmology”, *JANES* 15 (1983), 39-49.

Jacobsen, T., “The Battle between Marduk and Tiamat”, *JAOS* 88 (1968), 104-108.

Jacobsen, T., “The  $lil_2$  of ‘En-lil $_2$ ”, H. Behrens, D. Loding, and M. T. Roth, eds., *DUMU-E $_2$ -DUB-BA-A: Studies in Honor of Åke W. Sjöberg*, Occasional Publications of the Samuel Noah Kramer Fund 11, Philadelphia: Babylonian Section, University Museum, 1989, 267-276.

Kaufmann, Y., *The Religion of Israel: From Its Beginnings to the Babylonian Exile*, M. Greenberg, trans. and ab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Kawashima, R. S., “The Priestly Tent of Meeting and the Problem of Divine Transcendence”, *JR* 86 (2006), 226-257.

Keel, O. and Schroer, S., *Creation: Biblical Theologies in the Context of the Ancient Near East*, P. T. Daniels, trans.,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5.

Lambert, W. G., “A New Look at the Babylonian Background of Genesis”, R. S. Hess and D. T. Tsumura, eds., “*I Studied Inscriptions from before the Flood*”: *Ancient Near Eastern, Literary, and Linguistic Approaches to Genesis 1-11*,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4, 96-113.

Lambert, W. G., *Babylonian Creation Myths*, Mesopotamian civilizations 16,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3.

Lambert, W. G. and Millard, A. R., *Atra-ḫašīs: The Babylonian Story of the Flood*, Oxford: Clarendon, 1969.

Levenson, J. D., *Creation and the Persistence of Evil: The Jewish Drama of Divine Omnipot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Machinist, P., “Once More: Monotheism in Biblical Israel”, *JISMOR* 1 (2005), 25-39.

Machinist, P., “Foreword”, H. Gunkel, *Creation and Chaos in the Primeval Era and the Eschaton: A Religio-Historical Study of Genesis 1 and Revelation 12*, K. W. Whitney Jr., tran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6, xv-xx.

Mankowski, P. V., *Akkadian Loanwords in Biblical Hebrew*, Harvard Semitic Studies 47,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0.

May, H. G., “Some Cosmic Connotations of *Mayim Rabbîm*, “Many Waters””, *JBL* 74 (1955), 9-21.

- Moran, W. L., “Atrahasis: The Babylonian Story of the Flood”, *Biblica* 52 (1971), 51-61.
- Nicholson, E., *The Pentateuch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Legacy of Julius Wellhause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Nihan, C., *From Priestly Torah to Pentateuch: A Study in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Leviticus*, FAT 2/25, Tübingen: Mohr Siebeck, 2007.
- Nissinen, M., *Prophets and Prophecy in the Ancient Near East*, Writings from the Ancient World 12,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3.
- Noth, M., *Exodus: A Commentary*, OTL, J. S. Bowden, tran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2.
- Oshima, T., “The Babylonian God Marduk”, G. Leick, ed., *The Babylonian World*, Routledge Worlds, New York: Routledge, 2007, 348-360.
- Otzen, B., “The Use of Myth in Genesis”, B. Otzen, H. Gottlieb, and K. Jeppesen, eds., *Myths in the Old Testament*, F. Cryer, trans., London: SCM, 1980, 22-61.
- Pardee, D., “The Ba‘lu Myth”, W. W. Hallo, ed., *The Context of Scripture*, vol. 1, Leiden: Brill, 1997, 241-274.
- Propp, W. H. C., *Exodus 1-18*, Anchor Bible 2, New York: Doubleday, 1999.
- Rendtorff, R., *The Problem of the Process of Transmission in the Pentateuch*, J. J. Scullion, trans., JSOTSup 89, Sheffield: JSOT Press, 1990.
- Schmid, K., “Has European Scholarship Abandoned the Documentary Hypothesis? Some Reminders on Its History and Remarks on Its Current Status”, T. B. Dozeman, K. Schmid, and B. J. Schwartz, eds., *The Pentateuch: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urrent Research*, FAT 78, Tübingen: Mohr Siebeck, 2011, 17-30.
- Schmid, K., *The Old Testament: A Literary History*, L. M. Maloney, trans., Minneapolis: Fortress, 2012.
- Schmid, K., *A Historical Theology of the Hebrew Bible*, P. Altmann, trans., Grand Rapids, MI: Eerdmans, 2019.
- Schwartz, B. J., “The Priestly Account of the Theophany and Lawgiving at Sinai Texts”, M. V. Fox, et al., eds., *Texts, Temples, and Traditions: A Tribute to Menahem Haran*,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6, 103-134.
- Schwemer, D., “The Storm-Gods of the Ancient Near East: Summary, Synthesis, Recent Studies: Part I”, *JANER* 7:2 (2008), 127-128.
- Scurlock, J., “Chaoskampf Lost-Chaoskampf Regained: The Gunkel Hypothesis Revisited”, J. Scurlock and R. H. Beal, eds., *Creation and Chaos: A*

- Reconsideration of Hermann Gunkel's Chaokampf Hypothesis*,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3, 257-268.
- Scurlock, J. and Beal, R. H., eds., *Creation and Chaos: A Reconsideration of Hermann Gunkel's Chaokampf Hypothesis*,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3.
- Sjöberg, Å. W., "Eve and the Chameleon", W. B. Barrick and J. R. Spencer, eds., *In the Shelter of Elyon: Essays on Ancient Palestinian Life and Literature in Honor of G. W. Ahlström*, JSOTSup 31, Sheffield: JSOT Press, 1984.
- Smith, M. S., *The Early History of God: Yahweh and the Other Deities in Ancient Israel*, 2nd ed., Biblical Resource Serie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2.
- Smith, M. S., *The Priestly Vision of Genesis 1*,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0.
- Smith, M. S., *The Ugaritic Baal Cycle Volume 1: Introduction with Text, Translation and Commentary of KTU 1.1-1.2*, VTSup 55, Leiden: Brill, 1994.
- Sommer, B. D., *The Bodies of God and the World of Ancient Isra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Sparks, K. L., "'Enūma Elish' and Priestly Mimesis: Elite Emulation in Nascent Judaism", *JBL* 126 (2007), 625-648.
- Steinkeller, P., "On Rulers, Priests and Sacred Marriage: Tracing the Evolution of Early Sumerian Kingship", K. Watanabe, ed., *Priests and Officials in the Ancient Near East*, Heidelberg: Universitätsverlag C. Winter, 1999, 103-137.
- Steinkeller, P., "More on the Archaic Writing of the Name of Enlil/Nippur", A. Kleinerman, and J. M. Sasson, eds., *Why Should Someone Who Knows Something Conceal It?: Cuneiform Studies in Honor of David I. Owen on His 70th Birthday*, Bethesda, MD: CDL, 2010, 239-243.
- Stone, A., "Enlil/Ellil (god)", <http://oracc.museum.upenn.edu/amgg/listofdeities/enlil/> (2022.7.30.).
- Tsumura, D. T., *Creation and Destruction: A Reappraisal of the Chaokampf Theory in the Old Testament*,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5.
- Watson, R. S., *Chaos Uncreated: A Reassessment of the Theme of "Chaos" in the Hebrew Bible*, BZAW 341, Berlin: de Gruyter, 2005.
- Whitney, K. W., *Two Strange Beasts: Leviathan and Behemoth in Second Temple and Early Rabbinic Judaism*, Harvard Semitic Monographs 63,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6.



<Abstract>

**Is There a Combat Myth Motif (*Chaoskampfmythos*)  
in the Priestly Source?:  
Reading Genesis 1:2; 8:1 and Exodus 14:21**

Sun Bok Ba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hard to read the Combat Myth in the creation, the flood, and the Re(e)d Sea stories in the Priestly source (especially, Gen 1:2; 8:1; Exo 14:21). Yahweh is never particularly a storm-god in the Priestly source. The waters are never demonized and are not even personified. The Priestly author does not draw an analogy between Yahweh and Marduk in *Enuma Elish* or Baal in the Baal Cycle who are both warrior-like deities. Many previous studies regarded the differences in the Priestly narrative from Mesopotamian and Canaanite myths, especially the ones in *Enuma Elish* and the Baal Cycle, as the former's response to the latter. Yet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the allegedly reinterpreted or revised motif of the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is present in the Priestly source, nor that the Priestly source responds to the foreign religions, institutions, or literature even if the motif is really present. It is unfair to read an entire mythic episode or plot into the Priestly text because of any tenuous correspondence, as if the biblical author could not compose a narrative without making use of an existing mythical structure. Some old traditional motifs could be there and knowing them may help decode incomprehensible literary conventions that now escape us. But the mythological motifs, if any, were developed and transformed within the larger context of the Priestly style and plot. The Priestly story cannot be defined merely as a historicized myth. The Priestly historical narrative is a different genre, whose complexity and uniqueness deserve an independent analysis from the alleged mythical paradigm.